

# “이제야 오네”... 제주 장마 주말 시작

### 기상청 “최근 찬 공기 세력 약화되며 장마전선 북상” 작년엔 6월 10일 시작해 역대 최장기간인 49일 기록

제주의 장마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8일 기상청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찬 공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정체전선(장마전선)이 최근 찬 공기의 세력 약화로 인해 서서히 북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음달 2일을 전후해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은 정체전선이 제주에 영향을

주면서 장마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북상한 뒤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과 어우러지면서 다음달 2일 제주, 4일 이후로는 내륙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가 7월 2일, 전라도와 남부지방이 4-5일, 충청도 7-8일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달 2일을 전후해 제주지역이 장마철에 접어드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방에선 언제 장마가 시작될지는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음달 2일 이후 내리는 비는 정체전선과 저기압 어우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강한 비구름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기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장마 기간 남아 있을 소지가 있어 순식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나 폭우에 대비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상청 여름철 강수통계에 따르면 제주에서 장마가 가장 빨리 시작됐던 해는 지난 2011년(6월 11일)이며, 가장 늦은 해는 1982년(7월 5일)이다. 가장 빠른 장마 종료 시기는 1973년 7월 1일로 장마기간은 단 1주일이었다.

특히 지난해 제주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49일간 지속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 기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도내 초·중·고 91% 전체 등교

### 부분등교 학교는 27개교 2학기 개학 전까지 적용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앞두고 제주 지역도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학사 일정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학기말 거리두기 1.5 단계에 따른 학교별 학사운영 조정 에 따라 도내 전체 314개교(유치원 123, 초 101, 중 38, 고 22, 특수 3)가 전면 등교수업을 하고 있다.

전교생의 3분의 2 등교수업이 원천인 600명~1000명 미만 초등학교, 500명~800명 미만 중·고등학교 35

개교(직업계고 5개교 포함)가 모두 학교장 재량으로 전체 등교수업을 결정하면서 1000명 이상 초등학교 12개교, 800명 이상 중학교 7개교와 평준화 일반고 8개교 등 27개교만 2/3 밀집도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초등학교 1-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이같은 조치는 2학기 개학 전까지 적용된다.

한편 이날 이석문 교육감은 “7월 1일자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되는데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비”라면서 “새로운 방침에도 긴장을 놓지 않고 안전이 유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 교육희망지원금 ‘탐나는전’으로 지급

### 내달 26일부터 1인당 10만원

제주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이 본격화된다. 다만,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도내 공사립 유치원생에 대한 지급 여부와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7월 26일부터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원할 방

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가 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해 지급 여부와 시기를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해 지급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원대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 여부와 시기는 추후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해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구속

### 대출금 상환명목 1억여원 편취 경찰, 같은 수법 30대우도 검거

제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중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이 피의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을 당해 가진 돈을 사기당하자 성공수수료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내 일원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1억378만원을 받아 편취한 A(45)씨를 지난 24일 사기혐의로 불잡아 구속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수법으로 1250만원을 편취하려던 B(37·여)씨를 25일 사기 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정책자금 금융지원기금 승인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4865만원도 회수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현금 1000만원을 수거책에게 건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당일 오후 제주시 차량관리사업단 앞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날 보이스피싱으로 수백만원을 날리게 되자 해당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해 성공수수료 1%를 약속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백광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 바다 이색 볼거리 ‘원담’ 28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원담 위를 걸으며 제주의 초여름을 만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술 마시던중 지인 흉기 상해 살인미수 혐의 50대 징역 5년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대화가 곤란하고, 한쪽 손이 마비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민성기자

# 해안도로서 차 경계석 충돌

제주시 구좌 해안도로에서 차량이 경계석에 부딪힌 후 운전자가 2m 아래로 추락했다.

28일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7분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도로에서 차량이 경계석을 충돌해 운전자 A(24·여)씨가 2m 아래 갯바위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직원들이 삼다수 빼돌리고 있다”

### 개발공사 4명 직위해제... 자체 감사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직원들이 삼다수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공장에서 생산된 삼다수 일부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4명을 지난 23일자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위해제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개발공사는 최근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쓰는 블라인드 내부 게시판에 ‘모 직원들이 삼다수 물량을 빼돌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자 감사

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중에는 과장 등 중간관리자 직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빼돌린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비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감사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개발공사는 도감사위 감사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기자

# “정부는 노동권 보장하라”

제주지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공동행동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공공부문 적자에 대한 책임 전가와 인력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며 “오늘부터 일주일 간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10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으로 일하는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축축**  
CONGRATULATIONS

**취득**  
의학박사 학위



**지승택**  
부 : 지덕설 (재 서귀포시상공회 회장, 해동이스콘(주) 대표이사)  
모 : 정혜숙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주지씨 현감공연과  
황노 할아버지 자손일동**

**축축**  
CONGRATULATIONS

**취임**  
이도2동 체육회장



**서상수**  
(분협의회 산악회장)

이도2동 체육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좌중언 외 임원 일동**

**축축**  
CONGRATULATIONS

**수상**  
대통령표창



**강성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 24, 25대 지부장)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배문화 외 임직원 일동**

**축축**  
CONGRATULATIONS

**수상**  
'2021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지역사회봉사부문 대상)



**좌중언**  
(본교 6회)

'2021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지역사회봉사부문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부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용남 외 회원일동**